

'젊다! 새롭다! 활기차다!'

무주반딧불축제,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 도입

무주군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 젊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과 전국 청소년끼 페스티벌'을 신설했으며 9월 5일은 '키즈데이'로 집중할 계획이다.

총 10팀이 참가하는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본선 무대는 9월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등나무운동장(주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전국의 치어리더 꿈나무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는 전국의 끼쟁이들을 한 자리 불러

모은 '전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등나무운동장(주무대)에서 열리며 총 12팀이 무대에 올라 우승팀을 가린다.

환경과 과학 가족과의 한바탕 물총싸움을 벌이는 NEW 물벼락 페스티벌'은 기존 흥행 프로그램의 부활로, 신나는 댄스 공연과 버블버블 물총대첩', '코스프레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시원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9월 2일과 3일, 9일과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군청 앞 남대천교 위에서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키즈데이' 체험 존(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나무운동장)에서는 '샌드아트' 체험과 비

낭방울(눈송이, 스모그, 로프), 영수증 사진찍기' 체험이 진행되며 영화음악 갈라쇼와 '소녀가수 완이화 콘서트'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한중루 어린이 친환경 체험광장은 전통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됐다.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무주반딧불축제에는 활기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안전하게 실력을 뽐내며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26~27일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2023 진안 마이산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마이산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서 행사 진행

진안군은 지난 26~27일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2023 진안 마이산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생명의 숲이 주관했으며 군민을 비롯해 도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진안군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진안군민들과 전라북도민, 전문가들이 함께 곤충, 균류, 식물, 양서파충류, 지질, 포유류 6개 분야에서 총 생물 종 624종과 암석 5종을 발견함으로써 진안 마이산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인 마이산에서 백악기 퇴적암과 화산암, 돌탑과 타포니 등 마이산의 독특한 지질문화 탐사와 야간 곤충 탐사 등의 기회를 가졌다.

한 참가자는 "마이산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신비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며 "환경보전으로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안전한 등갯길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진안군은 29일 개학기를 맞아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갯길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 가지 않기 등을 홍보하면서, 통학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수칙 및 교육 준수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을 고의로 놀라게 하는 행위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가 됨에 따라 모범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이·미용비 사용처 네일 미용 업체까지 확대

9월 1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장수군은 노인 이·미용비 사용처를 관내 네일 미용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종 확대로 평소 시아가 흐리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손톱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어르신들이 전문가를 통해 손톱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1일부터 네일 미용 업체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손톱 관리 기본요금은 1만2000원이다.

이용권 일일 사용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부가적인 관리로 인한 추가 요금은 자부담이다.

현재 군은 장수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통해 연 12만 원의 장수사랑 이·미용권(바우처카드)을 지



원하고 있다. 이에 7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네일미용업체가 포함된 만큼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손·발톱을 스스로 깎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간부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청렴 특별교육 실시

장수군 간부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 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장수군은 2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최후식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국제청렴경영 아카데미 박기경 원장이 강의를 나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갑질 금지규정과 갑질 위반사례에 대해 교



육했다. 최후식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갑

질의 정의와 갑질의 주요유형, 예방대책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갑질 근절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를 강조하고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후식 군수는 "시대 변화에 맞게 고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청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장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부터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